

# 호스피스팀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 의사

### 1. Dx:

Malignant neoplasm of liver cell carcinoma

### 2. 방사선소견(CHEST PA,RT DOWN DEC)

2006/5/25

RLL에 large consolidative lesion이 있고 RLL에 CPA blunting이 있어 large mass와 pleural effusion으로 생각되며 그 외에도 both lung fields에 multiple circumscribed mass들이 있어 모두 다 metastatic lesion들로 생각됨.

RLL에 chest tube가 insertion되어 있음.

-- Multiple metastatic lesions in both lungs with Rt pleural effusion.

2006/7/3

이전 film과 비교하여 interval change 없음.

Rt down decubitus film에서 free fluid shifting은 minimal 하여 RLL의 lesion 대부분은 consolidation 이고 fluid collection은 loculation 되어있거나 small amount 임을 알 수 있음. 새로 생긴 lesion 없음.

### 3. 혈액검사소견

### CBC

WBC 12.35(X109/L) H  
Seg.neutrophils 82.6% H  
Lymphocytes 9.1% L  
Monocytes 1.1% L  
RBC Count 4.29 L  
Hemoglobin 11.7 g/dl L  
Hematocrit 35.4% L  
Platelet Count 84(X109/L) L

### BC

Protein, Total 5.5(g/dL) L  
Albumin 1.9(g/dL) L  
AST(SGOT) 120 IU/L H  
ALT(SGPT) 85 IU/L H

### 4. 치료계획

#### 1) 통증 및 증상조절

- Morphin
- WET Dressing, 염증성처치

#### 2) 호스피스팀 접근

간호사

>>간호진단

■ 질병의 예후와 관련된 가족대처능력에 대한 불안감

S: “한번 왔다 가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집사람과 애들이...”

“저는 이미 죽은 놈인데 우리 식구들 준비위해 다시 살려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은 모두 나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O: 오른쪽 CTD remove 후 지속되는 분비물에 예민해 계심.

가족들이 자신의 죽음 때문에 흔들릴까 불안해 하심.

P: 1) 두려움, 절망감등 감정표현 적극지지.

2) 호스피스 Family meeting 실시.(호스피스팀 접근)

3) 가족상호 마음을 열어 대화 하도록 지지.

A: - 환자와 대화, 가족개별상담을 통하여 심연의 원의를 확인.

- 호스피스 Family meeting을 통하여 호스피스 팀원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각자의 희망과 기대를 표현하고, 남은 귀한 시간을 보람 있게 지낼 수 있도록 계획과 구상을 함. (결과-- 딸의 약혼식과 결혼식을 좀더 빠른 시일 내로 결정한다.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을 다녀온다. 친하던 벗들을 개별로 만날 수 있도록 계획을 짠다. 가족들은 외면하고 싶었던 환자의 임종을 수용하고 보다 잘 준비 시키려는 마음을 모으고 환자를 위한 각자의 방법을 모색.)

- 무뚝뚝한 성향의 부인은 애정표현에 있어 적극성을 띠도록 지지함.

E: - 환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희망을 가족들에게 이야기 하며, 쇠사슬에서 풀려난 것 같다 표현하심.

- 부인에게 먼저 이렇게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부인을 많이 사랑했고, 고맙다고 고백함.

■ 호스피스 Family meeting

가족들에게 모임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모든 가족들이 참석하고 호스피스팀원(의사,간호사, 사회사업가, 자원봉사자, 수도자(조정자))이 함께 하여 CT등 영상적 검사결과물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의문사항을 질문 받으며 가족간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가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조언하는 만남

- 환자는 매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선택하는 분이셨고, 퇴원해 계시는 동안도 주기적으로 호스피스병동과 연계를 가지며 신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 주셨고, 상의 하셨다. 9월에 딸의 결혼식이 울산에서 있었는데 무사히 손 잡고 나갈 수 있었다며,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고, 다시 입원을 해야 하겠다며, 이제는 정말 잘 죽으러 간다는 표현도 서슴없이 하셨다. 임종하시던 날도 눈물 짓는 부인을 위로하며 “여보!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니까” 하시며 마치 당신의 장례식을 바라보듯 웬 손님을 이렇게 많이 초대했냐며 밝은 얼굴로 숨을 거두셨다.

사회사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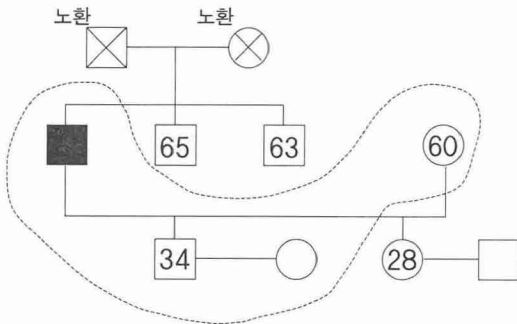
1. 개인력

성명: 김 OO  
 성별/나이 : M/67  
 입원일 : 1회 입원 2006년 5/25~8/1,  
 2회 입원 11/20~12/3  
 진단명 : HCC c Liver& Lung metastasis(서울S대학 병원소견)  
 정보제공자 : 부인, 아들, 딸

2. 건강력

- 운동으로 단련된 건강 체질로 건강에 관해 어려움 없이 지내시며, 평소 과하게 술을 좋아하심(3회 이상/주)  
 - 2005년 서울S대학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  
 - 2006년 5월 25일 간성혼수의 상태로 본원 응급실 경유 입원.

3. 가계도



4. 간호력

• 간성 혼수 후 의식상태 : mental alert.  
 • 활력증후-BP: 120/80mmHg, P: 76회/분,  
 BT: 37℃ R:18회/분  
 • 신체통합성  
 - 욕창: 없음. 부종: 없음, 발적: 없음, 병변부

위: CTD bottle remove 후 농성 분비물  
 소양감: 없음, 청색증: 없음

• 영양  
 - 식습관: 횡수 3회/1일, 기호식품: 특이편식 없이 식성 좋으심. 알러지: 없음, 오심,구토: 없음, 의치: 없음, 구강상태: 양호함.

5. 사회관계력

• 의사소통장애와 관련된 신체적 손상: 없음  
 • 관계형성  
 - 역할: 결혼(기혼), 부부관계(원만함, 부인이 강한 편으로 남편이 참아내는 성격), 자녀수(1남1녀), 직업(자영업), 가정에서의 역할(남편, 아버지-자상함)  
 • 사회생활  
 - 대인관계: 폭넓은 관계형성을 잘 맺으며, 술을 통한 유쾌한 관계를 중하게 여김. 대화를 즐기심.  
 - 가족관계: 상호 지지적이며 대화를 자주 나눔. 화목한 가정.  
 • 지식  
 - 질병대한 지각: 자신의 병명과 호스피스병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수용하는 상태. 남은 시간에 대해서도 꼼꼼히 활용하고 역할 수행에 주력하심.  
 - 학습능력: 있음, 신문을 중요시 여기며, 여가를 즐기심  
 • 감정  
 - 안정감을 느끼며 신체변화에 대해서도 의료진에게 전적인 신뢰로 의지함.  
 - 호스피스자원봉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안위를 느낌.

## 자원봉사자

## “여보!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니까”

2006년 5월 25일

처음만남은 응급실에서 간성훈수로 인해 사지 억제 상태로 1인 병실로 옮겨지셨고, 몹시 지쳐 계신 상태였다. 간단한 목례와 인사를 드리고 병실을 나왔다.

2006년 5월 26일

조심스레 병실에 들어섰더니 반색을 하시며 몹시 반가워하시며 일어나 앉으시려 하시어 누워계셔도 괜찮으시다 말씀을 드려도 앉으시며 우리들의 방문을 매우 반겨하셨다.

조심스레 머리를 감겨드리고 족욕과 발마사지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까?” 하시며 개운함에 잠이 저절로 온다며 누우시는 모습을 뵈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2006년 6월 14일

따님의 약혼식에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하시며 봉사를 많이 해서 예뻐지나 보다고 하십니다. 말끔하신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2006년 6월 27일

늘 그러시듯 기분이 좋으시고 반가이 맞아 주시며 여러 가지의 서류를 정리하시며 아내와 자식의 불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기적처럼 당신은 오늘을 살고 계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랑담긴 약손 때문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감사의 풍요로움을 느꼈습니다.

2006년 6월 28일

휠체어를 타고 복도에 나와 계셔서 반갑게 인사

를 나누고 복도 끝에서 끝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으나 하체가 약해져서인지 후들 거린다하시며 호스피스병동에 오셔서 병원생활하기 편하고, 과거에 유도, 태권도, 권투 등 무술을 하셔서 건강하게 사셨다하시다. 상태가 좋아졌는지 봉사자분들의 등 마사지 해주는 것이 몹시 시원하다고 표현하시며 감사를 표하셨다. 이제는 봉사자들과 거리감 없이 가까워져서 환자에게 다가가기 쉬워지고 마음 편히 도울 수 있고, 환자의 원하는 것을 표현해 주셔서 즐겁게 봉사하고 환자분도 봉사를 받으면 마음이 개운하고 가슴까지 후련하시다하여 우리는 모두 크게 소리를 내어 웃었고 환자분이 좋아하시는 “메기의 추억”을 같이 부르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2006년 7월 2일

언제나 그렇듯이 환하게 반기신다. 항상 자신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감사와 함께 미안함을 표현해 주셔서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돌봐드리게 된다. 머리 감겨 드리고 족욕과 함께 상체를 뜨거운 수건으로 시프해 드렸다. 지난주 보다 얼굴엔 주름이 더 많아보이긴 했지만 항상 밝은 모습이 뵈기에 좋기만 합니다.

2006년 7월 7일

복도에 나와 계시고 창밖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메기의 추억”을 같이 부르시며 그 노래에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 울음이 솟구치십니다. 한 참을 울도록 지지해 드리고 수녀님과 발마사지를 해드리니 매우 행복하다 하십니다.

2006년 7월 18일

날씨가 눅눅하여 몸이 개운치 않다고 하시고 목

욕을 하고 싶어 하셔서 시행을 하고나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시며 꿈을 꾸시는 것 같다고 표현하심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너무도 감사해 하시고 좋아 하시는 모습에 가족들도 기뻐하십니다.

**2006년 7월 31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환자분을 뵙는 게 우리도 즐거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샤워실에서 머리를 감고 발도 씻겨 드리고 몸도 뜨겁게 시프 해드리니 새로 태어나는 듯 정말 기분이 상쾌하다 하셨습니다.

**2006년 8월 1일**

온 가족이 출동해서 외출복 입고 퇴원하시는 모습은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배웅을 하며 잘 지내 시기를 기도했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몸은 힘들어도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막내딸을 결혼 시키고 다시 입원 하였는데 맘이 홀가분하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신다. 기침이 심해서 늑지를 못하고 앉아계심

**2006년 11월 27일**

숨쉬기가 곤란하신지 침상의 상을 올리고 그곳에 엎드려 계셨다. 살짝 아는 척 해드리니 목소리도 잘 안 나오시는 데 반기셨다. 엎드려 계셔서 그런지 얼굴이 부어계셨다. 머리를 감겨 달라고 하셨다. 앉은 상태에서 감겨드렸는데 개운하다고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나왔습니다.

**2006년 11월 28일**

부인과 함께 반가워하시며 맞아 주셨습니다. 힘들어하시며 대화를 나누시는데 한 박자 늦으시는 느낌

을 주십니다. 마사지 후 딸과 부인과 같이 수녀원정원 산책으로 기분을 환기 시키며 기뻐하셨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병실에 들어서니 부인과 함께 계셨다. 본인은 부인을 잘 만났다고 하면서 부인에게 고마움을 표현 하였습니다. 부인도 환자의 집안도움에 고마움을 표현하며 서로의 손을 마주잡으시며 부인이 눈시울을 붉히시니 그러지 말라고 크게 보자고 오히려 부인을 위로하심에 우리 모두도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해드리고 나왔습니다.

**2006년 12월 1일**

얇은 채로 상을 펴서 그 위에 머리를 얹고 있다가 우리가 들어서니 고개를 들고 반가움의 인사를 하신다. 부인의 얼굴은 피곤함과 두려움으로 불안해하심이 역력하시다. 이제 당신은 많이 다가선 것 같다하시며 부인걱정을 하신다. 호흡곤란이 심해서 봉사자들이 마음모아 기도드리고 나왔다.

**2006년 12월 3일**

오후9시 40분 웬 손님을 이렇게 많이 초대하셨냐며 마치 당신의 장례식을 바라보듯 반가운 사람들이 많이 왔네 하며 부인을 향해 “어보 그러지 마, 죽음은 슬퍼하는 할 일이 아냐”며 환자의 평소의 모습처럼 유쾌한(?) 임종을 맞으셨습니다.

사별 후 부인과 따님이 함께 병원을 방문하셨다. 호스피스병동에서의 생활은 너무도 행복했었다 하시며 장례 때도 빈소에 파랑새가 들어와 영정을 주위를 맴돌다 나갔다고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노라고, 호스피스병동에 안 왔다면 그이의 인생마무리가 이렇듯 아름다웠을까 생각한다 하시며 돌이켜 생각하니 그이 말씀대로 슬퍼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눈시울을 적시시며 감사의 뜻을 전하셨다.